

공단, 개발도상국 민관협력사업 지원나선다

- 세계은행과 공동 국제 컨설팅사업 수행 -

세계은행의 경제개발리더십 프로그램과 우리 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 연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동컨설팅사업으로 시행하는 한국의 민관협력사업 사례연구 사업자선정에서 공단이 구상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외사업본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철도사업을 포함하여 한국의 성공적인 민관협력사업 3건을 선정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제도개혁 및 정책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및 리더십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이들 국가의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되며 또한 동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상반기 중 세계은행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연계사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화시대의 국제환경에서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ODA(개발협력사업) 조달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10년 기준 1,876억불)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세기 대외원조의 대표적 성공사례이자 21세기 개발도상국이 가장 선호하는 발전모델로 자리매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의 국제 컨설팅사업에 대한 참여부진으로 국제 조달시장 주도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번 세계은행과의 공동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공단이 글로벌 컨설팅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개발도상국의 철도건설사업에 한국철도의 참여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사업본부 임영식 기자)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시험선 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 2013년 100% 국내기술개발 실용화 -

KR연구원(원장 서성호) 기술연구소는 지난 13일 본사 회의실에서 국가R&D과제로 개발 중인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의 성능평가·검증을 위한 시험선 설계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국가의 열차 신호시스템 표준화 방안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본 과제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순차적으로 150km/h급 도시철도(2014년), 250km/h급 일반철도(2017년), 450km/h급 고속철도(2020년)에 적용할 신호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과제로 총 950억원의 연구비가 소요되고 금번 1단계는 총 255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되는 대형 국가 R&D과제이다.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표준체계 구축 및 성능평가' 과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연구단으로 하여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는데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RAMS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1세부과제), 시험선 구축 및 성능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2세부과제), 철도전용 무선주파수 확보 및 무선망 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3세부과제)이 각각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KR연구원은 시험선 구축 및 성능평가를 주관하며 총 118억원의 연구비를 집행하고 있다. 특히, 기술연구소 전기연구부(부장 장사술)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험선 인프라 구축은 KR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철도기술연구원, 철도공사를 공동과제로 이끌고 있으며,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7일 계약된 '시험선 지상인프라 구축 및 시험선 유지보

수체계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이다. 설계용역은 공개 경쟁을 통하여 경인기술(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금번에 개최된 착수보고회에는 무선열차제어연구단(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설계사, 시스템 제작사, 공단 신호제어처, 기준심사처 등 여러 기관들이 참석하여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시험선 구축에 대한 당부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전남 무안군 대불선 일로~대불역

간 약 12km(단선)에 건설될 시험선은 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이 협약에 의하여 시험선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험선 설비 구축이 완료되는 2012. 8월까지 도시철도 시설성능시험기준에 따라 구성품시험, 완성품시험, 통합시험 및 정적시험을 거쳐 2012. 9월부터 본격적인 현장시험을 통하여 성능검증을 시작하게 된다.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실제 운행되는 2편성의 전동차를 투입하여 운영노선과 유사한 조건으로 시험을 완료하여 1단계 연구

가 완료되는 2013. 12월이면 명실상부한 100% 국내 기술에 의해 개발되어 실용화되는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도 기대할 수 있으며 철도신호시스템분야 건설 및 유지보수체계는 물론 철도운영 환경 전반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KR연구원 윤학선 기자)



영남본부, 동반성장 확산노력 지속

- 공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협의회 개최 -

영남본부(본부장 정재우)는 지난 18일 동반성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동반성장협의회는 감사사, 원도급사, 하도급사, 장비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협력사 위원들이 각자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협력관계 강화,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림산업(주) 이택희 위원은 원도급사로서 사업파트너인 협력업체 지원 및 동반성장을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 내부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성 확보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뿐만 아니라 물가인상 등 계약에 미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협력업체 지원 △장비 및 자재구입, 설비투자 등 운영자금을 무보증, 무이자로 금융지원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면제 및 경감으로 협력업체 보증수수료 절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정재우 본부장은 이런 좋은 제도 및 사례를 전 현장으로 전파하고, 이런 사례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유되어 점진적으로나마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남본부장은 협력회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단이 해결 가능한 부분에 있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현장 최일선에서 건설업무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협력

사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하도급사의 이주엽 공사팀장과 김중호 작업반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영남본부는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청렴향상 추진 방향 및 동반성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협력사에게 공단의 청렴의지를 표명하였고, 협력사와의 공생발전 의지도 다졌다.

동반성장협의회를 마치면서 정재우 영남본부장은 참석한 위원들에게 협력업체와의 갈등해소 및 상호협력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과 철도건설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사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 사회가 경쟁속에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주위도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여유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철도건설현장의 잇달은 사고로 인한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협력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영남본부 이종하 기자)



궤도자재 품질강화, 철도안전우려 불식

- 궤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사 간담회 개최 -



건설본부 궤도처(처장 김인재)는 지난 17일 공단, 궤도분야 시공사 및 감리단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궤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력사 간담회는 최근 궤도공사 현장에 성능검증 및 공급원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레일클립(e-clip)가 반입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단 내·외부에서 철도안전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됨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궤도품질 강화를 위해 공단과 협력사간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에서 김인재처장은 부정한 궤도자재 공급업체 제재를 위한 계약관련 규정 개정 및 시공자재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궤도자재 품질관리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여 향후 공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시공사에서는 궤도 품질관리 강화를 위

해 원소재의 관리 및 공급업체의 생산능력 등 조립단계 확인을 강화하는 시공자재 관리 방안을, 감리단에서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타 공사현장과 시공자재 수급현황 정보공유 및 외관·치수 검사용 특수계이지 활용 등 궤도자재 규격 확인 강화방안을 각 각 발표하였다. 김 처장은 "궤도자재는 철도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으로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단과 협력사 모두 궤도자재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단과 협력사는 현재 처해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앞으로 궤도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건설본부 김현영 기자)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기획조정실 녹색사업전략처(처장 노병국)는 지난 14일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중앙선 청량리~덕소, 장항선 전철화 및 1단계 개량, 영동선 전철화)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Feed Back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후평가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효과 분석, 사업시행 전·후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비교·분석으로 해당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이를 통하여 계획·시행 중인 철도건설사업에 Feed Back 하므로써 사업 초기계획의 내실화 및 Post-Construction의 효과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금번 중간보고회는 금년 6월 착수 후 수행한 설문조사 및 사업 전·후 비교분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시행효과 분석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남은 연구기간 동안 각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후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획조정실 이성도 기자)

■ 2011년 시행중인 연구용역

해당 건설공사	연구기간	학술분야 연구진	기술분야 용역사
장항선 개량 외 2개소	2011.06.7~12.3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서원기술단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전철화	2011.06.01~12.31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제일엔지니어링
영동선 동해~강릉 전철화	2011.06.01~12.3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서영엔지니어링